

5-15

(062-520-6234)

16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평실련이 이적 단체로 조작되고 있다.

(반대재, 25)

1. 사건 개요

전남지방 경찰청은 보안과와 기부사 광주지구대는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92, 93년도에 평화실련 학생연맹 (약: 평실련) 활동을 했던 신병식군 외 현역군인 4명(정병철, 김중현, 김현주, 박길용)과 문혜영 외 4명(박항순, 이광휴, 고영준, 정승룡)의 민간인을 복한 방송을 듣고 이를 실은 유인물을 만들어 전남대등 8개 대학에 배포한 혐의로 연행하였다.

연세의 상황은 신병식군은 구속방향이 확정되어 자대 민병대로 이송되었으며 나머지 군인 4명은 계속 조사중이다. 그리고 민간인 중 고영준군은 불구속으로 처분을 받았고 정승룡군은 보안수사대에서 이적단체 건설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죄로 판사에게 구속 요청을 하였으나 판사는 평실련의 강령과 활동이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이 되어 풀려나왔으며 문혜영, 박항순, 이광휴군은 구속방향이 확정되어 검찰수사로 송치되었다.

2. 연행자의 인적 사항과 부당성

보안수사대에서는 연행된 이들이 복한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무관하다. 연행자들 대부분이 평실련 활동을 92년, 93년에 잠깐씩 했던 사람들로서 현재는 취직이 확정되어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교사발령 대기 중이거나 공무원시험준비로 바쁜 사람들이다. 또한 군인들도 대부분이 단기간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고 군복부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92년도에는 평실련이 출범한 해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단체를 건설한다는 것이 오징어 당콩 먹듯이 쉬운 일도 아닌데 언제 학과공부하고 평실련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판에 언제 복한 방송을 청취하여 그것을 선전물로 만들어 배포까지 또한 이를 한 두시간이 1년을 넘기 못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이 5개월 정도 활동했을 뿐입니다.

1) 고영준 (전남대 경영학과 87학번 졸업)

- 92년 6월 부터 8월까지 평실련 1기 의장 역임
- 92년 8월 의장직을 사퇴하고 졸업과 취업준비
- 94년 4월 4일 오후 6시경 광주 무등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4월 6일 오후 9시까지 전남경찰청 산하 보안 수사대에서 조사를 불구속. 그 후 몇차례 걸쳐 출두하여 조사
- 고영준은 평실련 건설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평실련 건설과정을 조사
- 전혀 근거가 없는 복한 방송 청취에 대해 집중 추궁
- 이적 표현물 제작에 대해 조사
- 졸업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취업 준비중인 사람을 겨우 3개월 활동한 것에 대한 이러한 처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2) 정승룡 (광주대 경제학과 88학번 졸업)

- 92년 평실련 사무국장 역임
- 92년 9월 말경 사무국장 사임 그후 연락 두절
- 94년 4월 5일 오전 9시경 서울 동성 자취집에서 외출하다가 연행됨
- 94년 4월 7일 오후 7시경 보안 수사대에서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죄로 검찰에 구속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귀가 조치

- 그후 수차례 걸쳐 조사
- 92년 활동을 중단하고 1년 반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사
람을 연행하여 합법적 대중단체의 강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
- 사실 부근한 북한 방송 청취 추궁

3) 문혜영 (전남대 국문과 89학번 4년 재학)

- 92년 부터 평실련 활동
- 94년 4월 5일 오전 9시경 집앞에서 연행 구속
- 이적 표현물 제작에 대해 집중 조사
- 사실 부근한 북한 방송 청취 추궁

4) 박향순 (광주 교육대 수학교육학과 90학번 졸업)

- 92년 고대 평실련 활동 도중에 중단
- 졸업후 교사 발령 대기중
- 4월 5일 광주 자취방에서 오전 9시경 연행 구속
-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해서 조사

5) 이광휴 (서강 전문대 환경 위생과 91학번 2년)

- 93년 평실련에서 2개월 정도 활동
- 94년 4월 6일 0시 5분경 귀가 도중 집앞에서 연행 구속
- 2개월 활동하고 중단후 학업에 충실한 학생을 연행하여 사실이 없는 북한 방송
청취 이적표현물에 대해 조사하고 구속하는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음

6) 신평식 (전남대 국민윤리 교육학과 89학번 졸업 군인)

- 93년 평실련 2기 외장 위임
- 93년 12월 군 입대
- 94년 3월 27일 연행 기무사 광주 지구대로 이송
- 94년 4월 2일 연행사실 집에 통보
- 94년 4월 11일 주대 민병대고 기소
- 연행하여 1주일이나 지나서 집에 통보
- 가족 면회때 구타 흔적 발견

7) 김현주 (경기도 파주군 파주1리 사서함 109-21호 제 3포대)

(전남대 금속공학과 93학번 군인)

- 93년 평실련 활동
- 94년 2월 군입대
- 94년 3월 말부터 자대 에서 조사 받기 4월 11일 자대에서 기무사 광주지구대에
이송
- 혐의는 동일하게 북한 방송 청취
- 저학년에게 이런 혐의를 씌운다고 볼때 5공 6공때 수없이 자정되었던 군 복화
사업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8) 정병철 (광주대 출판 광고학과 89학번 졸업 군인)

- 92년 광주대 평실련 활동
- 93년 7월 현역 입대하였으나 간첩으로 귀향
- 94년 3월 14일 방위병 입대
- 94년 4월 9일 퇴소
- 94년 4월 11일 자대에서 출근하여 기무사 광주지구대에 연행
- 가족 면회때 구타 흔적 발견됨

9) 김종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 721 사서함 105-22호 본부포대)

(광주대 건축공학과 91학번 3년)

- 93년 3월 광주대 평실련 활동
- 93년 5월 활동 중단
- 93년 12월 군입대
- 3월말에 자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4월 11일 광주 극군 기무사로 이송
- 조사 내용 중 북한방송을 송신했다고 혐의 받음(통신대 근무)

10) 박길용(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사서함 68-24-25)

(호남대 경영학과 91학번 3년)

-93년 호남대 동아리 한무리(평실련 연대동아리) 활동

-93년 11월 군입대

-94년 3월말에 조사를 받다가 4월 11일 광주 구구기모산리 이소

-조사내용 상·북한 방송을 송신했다고 혐의 받음 (레이다실 근무)

3. 조사과정의 인권 유린과 조사내용의 허구성

<연행, 가택수사>

보안수사대에서는 연행된 이광유군을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광유군의 자필로 쓴 쪽지를 가지고 와서 가택수사를 실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정병철군(광주대 출판광고학과 졸업)에게는 가택수사할 때 전공서적과 팔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못지 못할 주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과정의 인권유린>

연행자들은 모두가 연행된 시각부터 거의 잠을 재우지 않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평식군의 경우에는 3월 27일에 광주로 이송된 이후 심수일이 넘도록 잠을 거의 재우지 않았습니다. 자대배치 받은지도 얼마되지 않아 군대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연행되어 가족, 친지 및 친구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밀실에서 12일동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틀만 잠을 자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하기 어려운 데 12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실만을 이야기 했겠습니까? 또한 군인이란 신분에서 생길수 밖에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그에게 어떤 다른 고문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알수 없습니다. 후배 동료들이 면회록 가두 받아 주지 않고 지그스 그스 바퀴시 벨시크 기계 실험대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신평식군 뿐만아니라 다른 군인 4명도 3월 말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신평식군과 같은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밀실에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안재우고 조사를 받기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영, 박항순, 이광유, 고영춘, 정승룡군들도 마찬가지로 잠을 안재우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조작된 수사>

이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 방송 청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조를 받았습니다.

보안수사대에서는 북한 방송을 청취한 문건이 평실련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건을 연행자들이 만들었다고 계속 추궁하면서 "아무개가 방송을 들었지?" "아무개가 방송을 청취하면서 기록했지?" 하면서 사건을 완전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행된 다른 사람이 다 불었다며 거짓으로 꾸며진 진술서들이 밀면서 이렇게 불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실련 사무실에 그러한 문건이 있을리 만무하고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실련의 활동취지는 바로 평화실현과 자주적인 통일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 주한미군, 군축 문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그의 결과물을 논문집을 편집해 시켜들이 어떻게 북한을 풍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들은 누가 배후조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평실련의 활동이 북한의 주장을 세련되게 포장할 잘해서 유인물화시키는 데 여기에는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힘으로는 이렇게 고문

44

하게 국가보안법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을 것이 없어서 국가보안법을 피해갔기 때문에 배후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실련은 합법적인 대중단체이기 때문에 보다 대중적으로 연구 선전사업을 했을 뿐이며 평실련 각동아리 대표들로 이루어진 회의 구조속에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배후'라는 말은 평실련을 와해시키기 위한 보안수사대의 치졸한 음모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평실련의 대중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평화 다른 진진들은 누가 혁명군 마느냐, 합법적때는 누가 무슨 이야기였느냐, 전국 평화단체 심포지엄은 어떻게 했느냐, 범민족 대회때는 무엇을 했느냐 등 평실련의 사업에 이적성을 달기 위해서 갖은 습책을 써가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실련의 사업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전개해 왔었습니다. 대중적인 편지 보내기 운동이나, 각종 핵과 주한미군 범죄문제 등에 관한 강연회, 군속실현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등을 개최했으며, 자료집등을 발간해 왔었습니다.

또한 평실련은 학술적으로 대안을 세우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았으며 저희가 펴 낸 자료집도 이미 국방위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서울, 부산 할것없이 발로 뛰어 다니면서 수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안수사대에서는 이러한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전개된 평실련의 사업을 가지고 취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평실련을 이적 단체로 만들기 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4. 평실련활동의 정당성

전남 지방 경찰청은 평실련이 북한 방송을 녹취, 요과없이 유인물화하여 북한 당국자의 주의 주장을 고무, 찬양,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실련은 그동안 한반도의 전쟁 반대, 평화실현, 비핵지대화 실현, 외국군 내 첩투, 인권모모, 생애 꾸밈, 진정한 민족사외문화 풍토조성등을 위해 방생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경찰당국은 북한 방송을 녹취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평실련은 각종 신문과 잡지 그리고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회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전쟁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선전내용으로는 주한미군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 사건의 진상, IAEA의 불공정한 핵사찰, 미국의 선제 핵공격, 120일 전쟁 시나리오등 인위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조성하는 핵문제, 월남전처럼 값어치 없이 이 땅의 젊은이가 피를 흘려야 하는 소말리아 전투병 파병문제, 국가의 자립적인 경제를 파탄시키는 무차별적인 수입개방문제등의 내용을 실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금까지 수없이 자행해 왔던 주한미군의 강간, 살인등 범죄, 경제를 파탄시키는 군비증강을 반대하는 강연회등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범죄에 아무런 법적제재를 가 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관한 토론회등을 대중적이고 합법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공해문제는 부동산 정화 작업, 광주천 청소등의 사업을 통해서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평실련의 정당한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적 단체의 활동이라면 우리 화도의 기초자본가 되어야 가조 시프가 만리도이 자지도 단연치 보병이기. 북한 동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임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고 탄압했던 사상평정법에 부리를 두고 있으며 해방직후의 비상시기에는 이승만정권이 전민중적인 항쟁을 암살하고 미국에 빌붙어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기반이었으며 박정희 독재 정권때는 영구집권을 획책하기위해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민청학련사건등 민주화 투쟁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지식인, 학생들, 생

그 사실을
아기며 성폭을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 농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들을 억압했던 것도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 경제 협력이 이야기되는 이 시기에 또다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단체인 평실련을 암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실련은 합법적 대중단체로 그 어느단체보다도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실련에 대해 북한 망명 투위, 미외 조면장 계의, 매체가 있다는 등으로 비리단체로 규정하려는 것은 합법적인 평실련을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주의 주장이 약간 다르다 해서 왜곡시키려는 경찰 당국의 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평실련에게 국가 보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

검찰에서는 평실련에게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평실련에게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찬양, 고무)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운반,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을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2항이 지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며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일반 형법 등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 전문중에서도 가장 애매모호하고 찬양, 고무개념에 의해 포함되는 죄 규정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위반혐의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북한이 마귀의 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그 주의주장이 모 두 악이라 할 수 없으며 긍정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상호 이해진 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통일의 가능성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 전반을 질식시키는 것이며 진실의 발견과 인간성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더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음 통해 해야 하는 것이 지 형법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이 조항은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형사적 처벌이라는 부기를 곧장 들이밀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사회현실의 개혁에 대한 제한을 송두리째 막고 있다.

평실련은 비 코팅에 실려져 마포 비리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것뿐이며, 김일성이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여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평실련은 그동안 강연회나 토론회등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평실련에서 추구하는 강령이 전쟁반대 평화실현, 인권보호 공해추방, 민족적인 사회문화풍토 조성등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평실련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란 것은 매우 부당하며 평실련이 만약 이적 단체라면 진보를 위한 모든 단체들도 불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의 대응

평실련은 앞으로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할 것입니다.

이미 평실련 지부가 있는 대학에 보안수사대에서는 평실련은 이적단체이니 동아리 방을 폐쇄하거나 퇴학을 급하게 해달라는 협조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평실련은 이에 대해서 학우들의 생각을 취합하고 각 대학 동아리 연합회, 총학생회의 객관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적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평실련에게 이적단체라는 누명의 부당성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평실련은 그동안 전개해 왔던 평화실현 자주통일 운동을 더욱 왕성하게 전개하여 평화의식을 더욱 확산시키는데도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애국적인 많은 사람들을 연행, 구속하고 심지어는 죽이기 까지 하였습니다. 평실련은 앞으로의 활동속에서 경찰들에게 평실련의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작하면 조작 할수록 진실의 소리를 만천하에 돌리게 할 것이며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평실련과 같은 애국적인 단체에게 함부로 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찰들에게 이기적 성향을 보내주었던 시내막 막부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실련 탄압을 분쇄하는 것은 곧 남중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분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지요.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명
	B10	

1. 피해자 김학범은 1991.2.20.17:00경 경기대 앞에서,
 피해자 홍순철은 1991.2.23. 23:40경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53의20 소재 집에서
 같은 최미전은 1991.3.6. 08:00경, 주거지인 경기도 [REDACTED]
 [REDACTED] 앞길에서,
 같은 박득준은 1991.3.11.13:30경 근무처인 (주)한국화약
 인천공장에서
 서울 중구 남산소재 국가안전 기획부 소속 수사관원들에게 각
 아무런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아무런
 고지없이 불법 강제연행되었는바, 각 연행 이틀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청에 송치되기까지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어
 이에 고발을 합니다.

2. 구체적 가혹행위

가. 김 학 범

- (1) 위 김학범은 연행되어 눈이 가려진 채 남산소재 안기부에 도착한 후, 딸각이라는 별명을 가진 계장과 그 부하2인으로 부터 조사를 받은바, 위 계장은 나이는 40여세, 안경을 끼었고 머리숱이 적은 키 176센티미터 정도의 사람입니다.
- (2) 위 수사관들은 위 피해자에게 "조국통일 촉진"그룹을 아는지 여부와 이에 가입한 사실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전면적으로 부인하자 야전침대 각목을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넣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쪼고, 조그려 뛰기, 팔굽혀펴기 등의 기합을 가했습니다.
- (3) 이러한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수사관들이 파악했다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어김없이 가해졌으며,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허벅지에 커다란 피멍이 들었고, 한편 연행후 만 3일동안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 (4) 이러한 폭행은 검침 중지시까지 정도의 참이는 있었으나 계속해서 참아내었고, 수사관들은 증거를 남기실 수 있도록 허벅지상과 팔자지를

통해 없애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나. 홍 순 철

(1) 위 피해자는 연행되어 안기부에서 실장1인 (키 170여 센티미터, 얼굴은 붉고 대머리에 눈이 짙은)과 그 부하 5,6인에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들은 안기부 내 지하실로 위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며 계단에서 부터 구타를 하였고 내려가서 조사실로 들어간 후에 위 피해자를 군복으로 갈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실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번갈아가며 목과 가슴, 배등을 구타하고, 정강이를 구둑발로 차면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배자의 소재를 대라는등 하면서 토끼땀, 앞드려 벌쳐등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1시간여동안 앞드려 벌쳐를 하느라고 손등이 벗겨져 딱지가 앉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안기부 도착후, 6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3) 또한 여기는 벽편이 없으니 죽어서 나가도 알길이 없다는등 협박을

가하였고 심지어는 야전침대 각목으로 어깨등을 무자별 구타한 바 있는 것입니다.

다. 박 득 준

(1) 위 피해자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실장1인과 그 부하 5명인데, 그 중 주로

수사에 임한 자는 고영준 (연세대 담당, 전라도 군산출신, 키 173

센티미터 정도) 현창구(검은색 가죽 장바를 입고, 165 센티미터 정도

키에 뚱뚱하고 눈이 약간 사시임)등입니다.

(2) 이들은 위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자마자 가명이 경수가 아니냐면서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구타를 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

사항에 있어서도 1990.년 활동사항을 대라는 등으로 강압적인

수사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발바닥을 야전침대에서 뽑은 각목으로 때렸

으며, 수시로 토끼뿔, 엷드려 번쳐등을 시켰을 뿐 아니라 위 각목과

주먹으로 배와등을 구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이 취한 상태의 수사관이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목주위의 왼쪽어깨를 쳐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배, 가슴
등은 멍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수사관들은 간악하게도 고문후에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약을 발라주고, 의사를 불러 상처부위 소독과 마사지까지 행

했던 것입니다.

라. 최 미 전

(1) 위 피해자는 주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분실 518호실에서 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 518호실의 실장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자로 알려져 있었고 40세
가량이며 신장 170cm 정도에 골격이 크고 눈 끝이 지켜 올라갔으며
앞 윗니 두개의 사이가 떨어진 신체적 특징을 지닌 자였고 자신이
전대협 의장 송갑석을 수사한 바 있다고 고소인에게 말하기도 한
자입니다.

위 실장은 주로 두명의 수사요원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중 1인은

얼굴이 희고 미남형이며 키는 170cm 정도에 운동 선수처럼 신체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전라도 말씨를 썼으며 나머지 1인은 다소 마른편이고 곱슬머리에 광대뼈가 튀어 나왔으며 170cm 정도의 키에 경상도 말씨를 쓰고 있습니다.

(2) 1991.3.5. 오전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위 실장이라는 자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무수히 때리고 30분 간격으로 엎드려 뺨쳐를 수회 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거듭 진술을 강요하였 증 익일 새벽인 3.7.01:00

경이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책상에 엎드려 자게하면서 자신은 임의대로 피해자의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3.7.08:00경 위 실장이라는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멋대로

작성한 위 진술서 위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사정없이 무수히 때리고 구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걸어 찼으며 두려움이 극에 달한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날인을 거부하다가는 어떤일이 생길지 알수없어
부득이 그 무렵 위 실장이 멋대로 써준 진술서에 서명무 날인하였
는바, 위 진술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라. 계속 추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것을 요구받던 중 3.8. 오전 피해자는
위 수사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위 실장외2인이 수사관들은 당일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을
벗고 탁자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길이 1m, 직경 3cm의 몸통이로 무릎 윗 부분과
등 부분을 수회씩 때리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옆드려
벌쳐를 3시간 가량 계속시켰으며 피해자가 마침내 옆으로 쓰러지자
구둣발로 고소인의 몸등 부위를 수회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위에 목 부분을 침대밖
으로 빼 놓은 채 눕게 하고서는 만일 머리가 몸 보다도 아래로

내려가면 혼날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주겠다고 하면서 위 518호실의
실장과는 다른 자로서 역시 실장이라고 불리는 얼굴이 희고 금테
안경을 낀자를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을 벗고 의자의

등받이 좌우상단 끝을 두손으로 붙잡고 양무릎을 의자의 앉는 부분
끝에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 아래의 양쪽 발끝은 의자의 앉음대
부분과 수평이 된 채 의자 바깥으로 향하는 체위를 움직임 없이
수십분 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릎과 팔 및 허리부분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마. 피해자는 계속되는 고문과 강요에 못이겨 3.10. 경에는 부득이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518호 실장이라는 자는 이를
보더니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하면서 다시 토끼뽕을
1,200회나 시켰습니다.

바. 피해자는 3.6. 08:00경 불법연행될 당시 피해자가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경기 벽제읍 사리현리 현대아파트 씨동 104호의 열쇠를 소지

하고 있다가 위 수사관들에 의하여 압수 당하였던 바, 위 수사관들은
같은 날 낮과 그 익일 무렵 등 2회에 걸쳐 압수 수색영장 없이 및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어느 누구의 동의도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함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녹음테이프 5개와 책자3권을 꺼내
감으로써 피해자등의 주거를 침입하고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임 장 1봉

1991. 5.

고 발 인;

김 학 범(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수번.190)의

어머니 김 영 희

주 소; 서울 

홍 순 철(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수번 1)의

어머니 강 춘 자

주소; 경기도 [REDACTED]

박 득 준(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수번 33)의

어머니 이 호 범

주소; 서울 [REDACTED]
[REDACTED]

최 미 전(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수번 159)의

어머니 이 광 자

주소; 경기도 [REDACTED]
[REDACTED]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 호 사 박 승 욱

변 호 사 백 승 현

서울지방검찰청

귀 중

광주 시청 지원과 귀하

부상사유 - 서 경원 카톨릭 농민회 회장

보안대 시멘트 바닥에서 "너는 공산당보다 더 악질이기 때문에 총으로 쏘아 죽이면 실
탄이 아까우니까 밟아서 죽인다. 오리 누워라!" 명령한후 보안대원들이 (약 20여
명) 집단 폭행을 하였다.

짓밟힘을 몇시간 당한후 천병대로 넘어갔다.

그 후유증으로 하혈하고 혈변을 보는등 후유증이 아주 심해 광주 종합병원에 입원은
한달 하였다.

또한 10월31일 오후 광주교도소 보안과에서 오후 4시부터 당시 소장 최근식 지휘하여

온몸을 수갑과 포승줄로 묶고 온갖구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신하면 찬물을 부어
깨어나게 하고, 다시 끊어 얹혀 놓고 방망이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손마디 뼈마디 마다
골라 가면서 매를 때리것이 4시간동안 3차례 정도 반복 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어깨가 쭈시고 시려워 어깨,팔,다리가 심해 통증이 심해 고
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증인으로는 현 국회의원 정상용씨와 목포의 안철씨 그리고 목포의 이 성숙씨가
있습니다.

서 경원 전 의원 처 일 선순

간첩·가혹행위 계속 논란 예상

헌법재판소의 민원부
 0원 제재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파급을 던졌던 徐
 敬元의 원사건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주요쟁점인 徐의
 민원 간첩행위부분을 비
 작한 조치는 任意性이
 었다.

이민법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과징금 5만달러
 를 받았다는 등, 북한에 대
 남작의 이용된 것이 확실
 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박
 수 있다. 판단을 내린 것
 으로 풀이된다.
 이번 徐의 원사건 판결은
 徐의 원으로부터 1만달러
 를 받은 혐의로 불수기
 소된 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
 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부
 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金大中 총재의
 혐의와 徐의 원이 金敬燾 추
 기경에게 인물을 권유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 이미 공소제기가
 되었다"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
 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을 내리지 않았다.

徐敬元의 원사건 1審선고와 上級審전망

뜻,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안기부 검찰청 수사기관
 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자
 유로운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徐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재판부는 「徐의 원사건의
 文益煥 사와 林秀卿 양의 공
 개적인 발문사건과 본질
 적으로 다르다」고 밝혀 徐
 의 원발죄의 혐이 더 나
 는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첩사
 건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등의 극형이 선고되던 관
 행과 달리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최근의 국
 제 조약과 정부의 내보정책
 및 徐의 원이 누설한 국가
 기밀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고도의 비밀이 아닌 첩보
 에서 찾았다.

이밖에 불고자 혐의 구
 속 또는 불수기 피고인들에
 개는 「徐 피고인의 인신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의 고
 발하지 못한 점상을 살펴
 수 있다」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피고인들을 내 국가
 보안법상의 불고자죄에 대
 한 위헌제정신청을 헌법재
 판원의 자문을 요청한 인
 내법원에서 채택했다고 불
 수 없다」며 기각했다.
 徐의 원 변호인의 「50여
 인간 장기구급상해에서 徐
 의 원은 피고인들이 가혹행
 위로 하여진술한 부분을
 모두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
 정하였는 사법부의 독립을
 의식케 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표명했다.
 앞으로 상급법원에서 徐
 의 원의 간첩행위와 가혹행
 위에 따른 진술의 증거 채택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별 선고형량

피고인	직업	합의	구형량	선고형량
徐敬元 (52)	평민당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지령수수 합인탈출금품위반)	무기	징15년 자정15년 백24만
房羊均 (34)	徐의원비서관	"	징15년 자정15년	징15년 자정15년
金容來 (37)	"	국가보안법 위반 (불고지 증거인멸죄)	징2년 자정2년	징12년 자정1년
李健雨 (57)	기동동일분과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불고지 편제공)	징3년 자정3년	"
李吉誠 (49)	평민당대외협력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불고지)	"	"
李崑雨 (37)	한국시그네틱스전자기술부장 (徐의 동서)	" 외환관리법 위반	징1년6월 자정1년6월	선고유예
高今澈 (38)	徐의원내연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불고지)	징2년 자정2년	징10월 자정1집유1년
鄭聖滋 (43)	가농사무국장	"	"	"
方濟明 (61)	원일레벨 산업 회장	"	징1년6월 자정1년6월	선고유예
金相德 (52)	기동회장	"	"	"
吳同喆 (33)	徐의원운전기사	" 증거인멸죄	징2년 자정2년	징10월 자정1집유1년

재판부는 「발문한 장
 벽이 무너지는 국재 조류
 가 넘친 상태에서 화해사태
 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정
 부도 적극적인 남북대화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
 형선고에 따른 내외의 주
 목을 피하고 장기형만으로
 처벌요구를 충실히 거둘

“拷問으로 허위진술” 인정안돼
 변호인 “強壓속 自白 抗訴할터”
 不告知罪 관련자엔 정상참작 흔적

徐의 원 변호인의 「50여
 인간 장기구급상해에서 徐
 의 원은 피고인들이 가혹행
 위로 하여진술한 부분을
 모두 유죄판결의 증거로 인
 정하였는 사법부의 독립을
 의식케 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표명했다.
 앞으로 상급법원에서 徐
 의 원의 간첩행위와 가혹행
 위에 따른 진술의 증거 채택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東亞戲院 白寅洙

총알 通過

서경원

서경원

1. 신상관계

주민등록번호: 270500 [redacted]

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전 평화민주당 전남 영광 함평 지구당 위원장

본적: 전남 [redacted]

주소: 서울시 [redacted]

2. 첫번째 고문

1980년 광주항쟁 당시 80년 6월 20일 연행되어 함평경찰서에서 40일간 감금되었음.

광주 31사단에서 폭력구타, 많은 배를 맞고 쓰러지면 찬물을 끼얹고 3번 죽었다 살아나면 찬물을 끼얹고 20명이 동원되어 짓밟아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온몸이 붓고 혈변을 보니까 광주육군통합병원에 입원, 한달 치료를 받은 뒤 광주교도소에 이감됨.

6개월 살고 80년 12월 26일 출소함(석방)

그때 당시 가족들은 몇 개월간 면회도 못해서 그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함.

지금 현재 당시의 고문 후유증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음. 광주 5.18 부상자로 되어 있음.

3. 두번째 고문

1989년 6월 26일 비밀리에 방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자수하였는데, 안기부에 연행되어 지금 현재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4년 3개월째 옥고를 치르고 있음.

안기부에 연행되어 많은 구타를 당하였고, 폭력, 회유, 옥지거리를 들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약물복용으로 피가 재떨이로 가득 나오는 것을 보고 실신하여 쓰러져서 피가 얼마 정도 더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게 고문을 당했으며 안기부 연행 당시 사람으로써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잠을 안재우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으며 하루에 2시간도 안 재웠다고 본인의 재판과정에 증언했으며 짐승처럼 다뤄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또 똑 같은 잠 안재우기, 무릎 꿇리기, 엎드려 뺨쳐등 엄청난 고문과 잠 안 재우기등 너무 많은 고문을 하였습니다.

방양군씨도 7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또 같은 고문 조작하여서 귀 고막도 터지고 지금도 허리 어깨가 쭈셔서 옥살이하는데 피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문 당하여 억울합니다. 이 일의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온 국민과 온 천하에 알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1993년 9월 25일

서경원 전 의원 처 임선순 올림.

광주 시청 지원과 귀하

부상 사유- 전 카톨릭 농민회 회장

보안대 시멘트 바닥에서 “너는 공산당보다 더 악질이기 때문에 총으로 쏘아 죽이면 실탄이 아까우니까 밟아서 죽인다. 요리 누워라!” 명령한 후 보원대원들 약 20여명이 집단 폭행을 하였다. 짓밟힘을 몇시간 당한 후 현병대로 넘어갔다.

그 후유증으로 하혈하고 보는 등 후유증이 아주 심해 광주통합병원에 입원을 한달 하였다.

또한 10월 31일 광주교도소 보안과에서 오후 4시부터 당시 소장 최근식 지휘하에 온몸을 수갑과

포승줄로 묶이고 구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실신하면 찬물을 부어 깨어나게 하고, 다시 꿰어 앉혀 놓고 방망이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손마디 뼈마디마다 골라가면서 매를 때린 것이 4시간 동안 3차례 정도 반복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어깨가 쭈시고 시려워 어깨, 팔, 다리가 심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증인으로는 현 국회의원 정상용씨와 목포의 안철씨 그리고 목포의 이성숙씨가 있습니다. -

서경원 전 의원 처 임선순

수신: 기독교 인권위원장님기하

수신인: 전경화민주당국회의원 전남영광 함평지량당
위원장 서정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

본적: 전남 ~~XXXXXXXXXX~~

신청인: 서우시 ~~XXXXXXXXXX~~

고문사유: 1) 1980년 광주의기당시

80년 6월 20일 연행 경찰서 (함평) 40일 감금

광주 31사관에서 폭력구타 많은배를맞고

쓰러지면 환물로 끼이고 3번 죽었다 살아나면

찬듯 끼이고 20명이 동원되 깃발의 목에서

끼가 넘어오고 온몸이 붓고 현병을 보내자

광주 육군병원 (홍창) 에 입원 (단치로 받은 뒤)

광주교도소에 이감 6개월 살고 80년 12. 26일

추소(석방) 함 2대당시 몇개월 가족면회도

못함 죽는줄은 알음니다. 지금현재 고문후유

증으로 몸시 고생하고있음. 광주 5.18

부상자로 되어있음

(2) 서정원 전의원은 1989년 6월 26일

연행되어 국회의원이 방북했다는

이유로 (2대당시 과수하였음) 안기복에 연행되어

지금현재 10년형을 받고 형제 4(년 3개월씩)

옥고를 치누고있으면 1. 안기복에 연행되어

많은 것과 폭력 정책 회유 목적까지
 원인을 안수없는 악물복용을하여 목에서
 꺼진 괴형이로 가혹한으로것 보고 심신하여
 쓰러져서 꺼진 것에 정은 더 많이 나뉘는지
 모게 고문은하여 안기복연행항시 사감은
 전일수없는 모욕과 짐을 안재우는 구형은
 고문은과 행행은하여 하누이 2시간은 양대
 윗다는 본인의 재판과정중인것은여 짐을치면
 다짜 인권을유기행습이다

2. 경찰이 송치되어 또 똑같은 짐을내루기
 무능함이기 넘느라바쳐 언질반고물 잠행
 는이부 발등은 고문은 하였습이다

3. 광양군 비서만도 7년형을받고
 전라남도에서 똑같은 고문은각함의시
 3고방이려리고 지금도 허리 아재기
 옥상이 지는데 피땀흘림으로고문은
 4년은 개척재 목고로치루고일습이다
 너무많은 고문은하여 무을함이다
 이일을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눈족
 문천화에 알려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수있도록 인권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1993년 9.25일 서정호 권위원 처 임선순 올림

E-HWA

安企部강연회 演안지설

徐의원사건소판 房羊均씨 演안지설 부인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11월 27일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M 1000

가짜편의점 규약본

徐의원사건 재판... 房비서관 公訴사실 부인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안국부 장관 방정환씨 徐의원사건 소판 房羊均씨

1. 인적사항

생년월일:

2남 1녀 중 장남이며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농아로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상이군인임.

학력: 1979년 서울 우신고 졸업, 1980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2학년까지 다님. 주소:

현재: 이충섭씨의 집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부친의 상이군인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본인은 1992년 용인정신병원의 의료부조자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

2. 병명

2차대전중후군이라는 정신장애에 쫓박 10년을 시달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용인병원에서는 우울증과 자폐증이 심하다고 함.

3. 사건개요

1980년 가을 교내 낙서사건으로 동대문서에 처음 연행되고 81년 5. 12일 학내 시위사건에 가담하여 강제휴학 당한 뒤 그해 10월 7일 학내 반정부시위를 주동하여 1년 6개월간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 했음.

84년 복대위 시절 동료들과의 논쟁 끝에 복학하였으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않았음. 연행 때마다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바 있는 이충섭씨는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자 안기부가 배후를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음. 이후 그는 바깥에서 인기척만 나도 "안기부가 잡으러 왔다"며 봉천동 습기찬 지하 셋방의 문을 공공 걸어잠근 채, 하루 3갑 이상의 줄담배를 피우며 7년을 그 상태로 살아왔음.

가끔씩 친구들이 만나러 가면 문에 담요를 쳐놓고 말 수가 적었으나 친구들은 "저러다가 말겠지"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그냥 지켜보기만 했음.

더욱이 부친은 가장 기대했던 장남이 그 꼴이 되자 화병과 낙담으로 집안 분위기는 한없이 어두웠음. 누이 두명은 출가를 했으나 사는 것이 넉넉치 못하고 남동생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음. 하고 있음.

1993년 6월경 휴머니스트 학생회 씨클 후배인 이화영씨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들과 상의 끝에 관할구청에 찾아가 용인정신병원에 의료부조자로 입원시켜 현재까지 입원중임.

4. 현재상태

1993년 12월부터 휴머니스트 학생회 씨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조직하여 이러한 사실을 성대 민주동문회보에 내고 이충섭씨의 치료를 위해, 1년 목표액 1,500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동문을 통해 이충섭씨의 치료를 맡아줄 개인병원 정신 의사를 찾던 중 명륜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정일 선생님께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로 함. 현재 충섭씨는 용인정신병원 의료부조자로 1년 6개월간 입원료중이나 의료부조자 병동은 사실상 수용소와 같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인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하나 이충섭씨가 퇴원 후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어서 후원회에서는 이충섭씨의 누님댁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방이 두칸인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음.

452024 D
김에 들리다
254510
254510
254510
16220
25

이충섭동문을 돕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네

이충섭동문은 1979년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여, 1980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후 "휴머니스트 학생회"에 가입, 80년 가을 교내 낙서 사건으로 동대문경찰서에 처음 연행되고, 81년 5.12 학내시위에 가담하여 강제 휴학 당한 후, 그 해 10월 7일 반정부시위를 주동하여 1년6개월간 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한 바 있습니다.

84년 '복대위' 시절 동료들과의 논쟁 끝에 복학을 하였으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연행 때 마다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바 있는 이충섭동문은 특히 당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자 안기부가 배후를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바깥에서 인기척만 나도 '안기부가 잡으러 왔다'며 봉천동 습기찬 지하 셋방의 문을 종종 걸어 잠근 채, '2차대전중후군'이라고 불린다는 정신장애에 모략 10년을 시달리며 살아가고 습니다.

귀를 뚫으셔서 발을 제대로 못하시는 어머니와 상이군인인 연로하신 아버님의 희망이던 장남 이충섭동문은 집안이 극빈하여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지금은 국립용인정신병원의 관립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민주동문회보(22호)에 이충섭동문에 관한 글이 실린 후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에 약 130여만원의 입원비를 내고 3개월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 후에는 정기적인 약물투여 정도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사의 희망적인 의견을 전해오는 동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을 모아 '이충섭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후원회의 첫 사업은 치료비의 모금입니다.

후원회, 자매금 1000, 관비도 치료비는 정기 모금
- 이충섭후원회 후원합니다.

1126 452024
D
후원회
김에 들리다
254510
254510
254510
16220
25

이충섭동문 빠르면 12월 중에 입원할 수 있을 듯

지난 11월 민주동문회보(22호)에 이충섭동문의 근황이 소개된 이후 많은 동문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4일 민주동문회 총회에서 김종박동문(산심, 79)이 제안하여 94년도 민주동문회의 공식 사업으로 이충섭동문 후원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더욱 많은 동문이 참가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이 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민주동문회 산하에 이충섭후원회를 결성하였고, 지난 12월 9일에 후원회 준비위원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1년간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 을 각 학년별 모금 실무자들이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주간에 대략 155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후원회에서는 일단 이충섭동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하여 12월 중에 입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토막소식)

- ☉☉☉ 탁무권(사학 76) 동문께서 현재 이충섭동문이 수용되어 있는 용인정신정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 ☉☉☉ 노동진(사학 78) 동문께서 이충섭동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하고 후원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후원자 현황

1. 85학번 일동(동문회 최다 출석으로 받은 상금): 100,000원
1. 권정은(국문 81) 100,000원
1. 김은애(역고 81) 100,000원
1. 김현동(사회 81) 100,000원
1. 이철기(경영 81) 200,000원
1. 이해명(도서관 81) 100,000원
1. 임종명(경제 81) 200,000원
1. 장수행(도서관 81) 50,000원
1. 황광석(경제 81) 100,000원
1. 천병광(산심 81) 100,000원
1. 박경식(국문 81) 100,000원
1. 이화영(사회 81) 300,000원

계: 1,550,000원

< 이충섭후원회 1,2차 모임의 주요 결정 사항 >

- 가. 이충섭동문이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병원을 옮긴다.
- 나. 병원 이전 후 3개월 간 치료를 한 후, 추후 대책을 세운다.
- 다. 1년간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모금한다.
- 라. 모금 방법은 각 학번별 모금 실무자를 선정,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금한다.
- 마. 이충섭동문의 치료 경과, 모금 현황, 후원자 명단,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담은 소식지를 격주로 발간하여 동문에게 우송한다.
- 바. 각 학번별 모금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민주동문회: 유은혜(동철 81), 조승문(산심 80)
- 79학번 이상: 김종박(산심 79), 고대영(무역 79)
- 80학번: 서번석(사회), 이상화(경제)
- 81학번: 김현동(사회), 이화영(사회)
- 82학번: 이한성(경영), 윤미향(가관)
- 83학번: 장병호(한철)
- 84학번: 이우용(), 이규하(중분)
- 85학번 이하는 추후 선정

사. 단기적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93년 12월 19일: 이충섭 동문 면회
- 2) 93년 12월 23일: 이충섭 동문 가족 면회 및 병원 선정
- 3) 94년 12월 중: 이충섭동문 병원 옮김.

이충섭 동문을 치료할 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천송세 고문님께서 지난 연말 송년 모임에서 우리들의 지성을 꾸짖었을 때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얼하며 서 있는지-----.

이충섭동문 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저희는 새해에 두 번 만났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이충섭동문을 치료할 의사에 대해 상의하였고, 두번째 모임에서는 이동문의 거처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탁부권동문의 소개로 만난 의사는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의 저자인 김정일씨였습니다. 김정일 의사께서는 과거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분이였기에 사정을 잘 이해해주었고 치료비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께 이충섭동문의 치료를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정일 의사의 도움으로 지금 이동문이 입원해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분의 의견은 이동문이 지금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이 살려본 후(2~3주)에 퇴원하여 김정일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이동문의 거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를 소개한 여러 분들, 특히 노동진동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찾아뵙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의사의 소견은 이충섭동문의 경우 안정된 거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문의 집 안형편이 어려워 거처를 마땅히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는 단칸 방에 사는 이동문 누님 덕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방이 두 칸인 집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정했고, 이동문의 누님도 동의하였습니다.

연말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많은 동문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천송세 고문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김정일의사 프로필

고대 의대, 38세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 서울시립병원 정신과 과장 역임
현 명륜신경정신과의원 전문의

저서: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도서출판 새길)

3월 1일부터 책과 같은 제목의 연극 공연

연말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보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현황

- 1. 85학번 100,000원
- 1. 권정은(국문 81) 100,000원
- 1. 김은애(역교 81) 100,000원
- 1. 김현동(사회 81) 100,000원
- 1. 이철기(경영 81) 200,000원
- 1. 이해영(도서관 81) 100,000원
- 1. 임종명(경제 81) 200,000원
- 1. 장수행(도서관 81) 50,000원
- 1. 황광석(경제 81) 100,000원
- 1. 천명광(산심 81) 100,000원
- 1. 박경식(국문 81) 100,000원
- 1. 이화영(사회 81) 300,000원
- 천승세 고문 100,000원
- 최승희(77, 경제) 100,000원
- 차종채(78, 경영) 300,000원
- 이정현(78, 경영) 300,000원
- 김준단(79, 사회) 500,000원
- 이근덕(80, 사학) 100,000원
- 김병수(82, 금속) 100,000원
- 이한성(82, 경영) 100,000원
- 장병호(83, 동철) 50,000원
- 이경애(83, 국문) 50,000원

94년 1월 5일 현재 3,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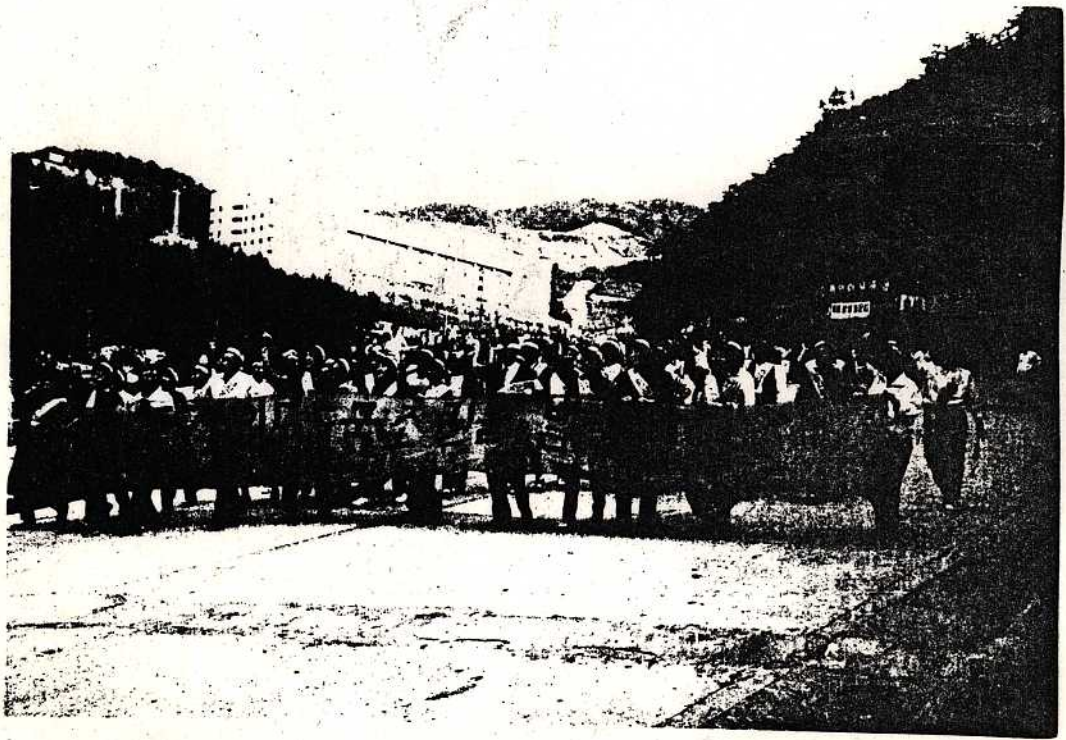
이충섭동문 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 고대영(79, 무역) 512-3435 김종박(79, 산심) 849-5887
- 서범석(80, 사회) 0342-705-9538
- 이상화(80, 경제) 592-2923 이화영(81, 사회) 491-0057
- 김현동(81, 사회) 032-612-0145
- 이한성(82, 경영) 583-8297 윤미향(82, 가관) 264-0608
- 장병호(83, 동철) 032-612-7868 정우용(84,) 743-2097

동의대 5.3 사건

진상규명

2차 자료집



동의대 5.3 항쟁 구속학생 가족대책위

지난 5월2일 총기난사규탄 대회 참가중 효민 서점 앞에서 사복들을 학생들로 오인해서 미쳐 도망가지 못해 사복조한테 잡혔다. 잡혔을 당시 3명의 사복중 2명이 어깨를 잡고 한 명이 복부를 강타했다. 그래서 쓰러졌다. 그리고나서 3명의 사복이 발로 짓밟는등 몰매를 맞았다. 그리고나서 2명이 나를 일으켜 양팔을 잡고 끌고 내려갔다. 끌려가는 도중 다른 사복조들이 옆구리와 뒤통수를 구타했다. 그리고 학교길 사거리에서 또 다른 사복조 한명이 와서 앞을 가로막고 두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쪽 다리 무릎으로 왼쪽눈을 강타했다. 그때 거의 나는 실신 상태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두명의 사복에게 엮어진 채 끌려가고 있었다. 나중에보니 왼쪽눈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다리 옆면에는 굵은 자국이 나 있었다.

또 끌려가는 도중 사학과 김정숙 학생이 3명의 사복조에게 둘러싸여 주먹으로 구타 당하는 것을 보았다. 끌려가서 가야3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는 사복들에게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고 꿇어 앉기를 강요당했다. 꿇어 앉자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파출소 직원 한명이 사복에게 피를 닦으라고 시키자 사복이 피를 닦았지만 계속해서 코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 사복은 피를 흘리면서 바닥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경찰이 종이를 가져와 내이름과 학과를 적고 죄목으로 무조건적으로 화염병소지를 기재했다. 기재도중 경찰이 5월1일 파출소 습격시 내가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말하면서 구둣발로 얼굴을 짓몽갸다.

그리고나서 진서로 가는 도중 사학과 김정숙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등 무수한 구타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진서에 도착해서 조서실로 가는 도중 한 형사가 "화염병 가져와 저 새끼들 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했다. 5월3일 5.3에 연루된 학생들이 다이아실로 들어 올때 한명한명 학우들에게 전경들이 군화발로 등을 차면서 들어 보냈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학우들에게 평자세로 앉게했다.

5월3일 밤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댓가로 잠을 재우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5월4일 새벽 조서를 다시 꾸미는 과정에서 나를 잡았다고 하는 사복조와 대질 신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화염병소지를 했다고 강요당했다. 구속된후 유치장으로 옮겨져서 합수부로 예상되는 형사가 조사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보여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무수한 구타와 함께 5월1일 파출소 습격때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다른학생의 진술을 들먹이며 강요했다. 5월11일 법원 송치시 검사실에서 조사받을때 검사가 험한 욕을 퍼 부으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며칠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다시 검사에게 조사 받을때 자로 머리를 지어박으며 조서를 받았다. 또 한차례의 검사 조사할때 처음부터 꿇어 앉아서 끝날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번 동의대 5.3사건의 조작, 왜곡, 고문수사는 5월3일 도서관 앞에서부터 각 경찰서로 분산 수송과정에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북부 경찰서에 이송되었고 문씨성의 형사가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북부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인 구타, 발길질, 인권유린의 행위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같은 나이 또래의 전경으로부터 받은 단체기합, 그리고 담당형사에게 경찰봉으로 어깨, 머리등에 맞은 상처는 10여일이 지나도록 사라지지않았습니다.

5월13일 부산 구치소로 이송된뒤 그곳에서의 수사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밤10시를 넘은 시간에 철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취조를 하는 3일째 정도의밤에 저의 담당검사인 박용석 검사가 아닌 신원을 알수 없는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은 "네가 돌과 화염병을 줌고 화염병 상자를 옮기는 것을 누가 시켰느냐? 신나는 누가 뿌렸느냐?"등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은 최루탄으로 눈을 뜰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우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움직일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나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관은 "그렇다면 네가 다른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을 줌고 화염병

상자등을 옮기는 것을 지시했다 내가 주동자다 너는 무기형이다"라고 하면서 권총을 빼어 머리에 대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 당했습니다. 또한 수차례나 뺨을 치고 꿇어 앉게하고 무차별 구타를 하였습니다.

총을 이용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우는 이종근(회계3), 조현득(경영3), 양진욱(철학4)이관구(경영2)학형들도 당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5.3항쟁의 모든 과정은 특히 화재 원인에 대한 진술은 진압 경찰관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조서속에서만 검찰측 논리를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조사는 저의 경우와 같이 철저한 고문 수사로 왜곡, 조작되었다는것을 폭로합니다.

최 대철(19 경영2)

5월3일 당시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의 일이다.

오전 8시경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 했을때 "7층에 신나를 누가 뿌렸고 그 위에 화염병을 던진자가 누구냐", "창틀에 매달린 전경의 손을 누가 각목으로 쳐서 떨어뜨렸느냐" 는 등의 질문에 사실 최루탄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2층에서 옥상까지 올라 갔기 때문에 본적도 없고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 XX 안되겠군 일단 맞고 시작하자" 면서 담당형사의 3명의 형사로 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다. 처음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당 형사는 앞에서 3명의 형사는 뒤에서 발로 나의 가슴과 등, 옆구리를 "살인자, 개 XX"라며 계속 걷어 찼다. 그때 왼쪽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그래서 몸을 움크렸다.그런뒤 또 몸을 엎드리게 한후 허리에 한명의 형사가 올라타 목을 뒤로 힘껏 젖혔고 두명의 형사는 다리를 꺾어 잡으면서 "바른대로 대답하라"고했다, 순간 숨이 끊겨지는 걸 느꼈을때 놓아주는 식으로 반복했다.

결국 생전 처음 받아보는 충격적인 가혹행위로 어쩔수 없이 이 종현이가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도 던졌다고 말했었다.그 당시의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외는 없었다.얼마나 그랬으면 녹골에 금이갈 정도의 심한 타격이었는데도 느끼지를 못했을까 싶다. 그리고 이틀후에야 심한 통증을 느꼈고 약을 복용하며 지내다 3개월 후 구치소에서 재발해 이때 엑스레이 결과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심한 운동은 못하고 있다.

조성민 (1954-11-15)
 김민준 (1965-03-10)
 이준호 (1970-08-20)
 박지현 (1975-05-12)
 정수민 (1980-01-05)
 최영환 (1985-09-18)

5공연행 충격 정신이상 여대생 가족 탄원

“살아남은게 죽은것만 못합니다”

군사정권의 감압통치 시절인 5공 초기에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3년째 정신이상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최영미(32·여·인천시 남동구 구월 2동 70-33 해창아파트 3동 303호)씨의 가족들이 최씨의 치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최씨의 어머니 전진숙(60)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최씨는 인천 대한공업전문대 통신과 1년 재학중이던 81년 6월10일 오전 7시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안기부 인천본실(이하공사) 소속의 건장한 남자 3명에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안기부 인천본실로 연행돼 지하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시국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나 1983-10-15 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였는데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돼 연행됐다는 것이다.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최씨는 풀려난 뒤 감시를 받는다는 강박관념으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82년 4월부터 87년 7월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한글도 알아보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경찰관 출신인 아버지가 화병으로 86년 6월 숨졌으며 치료비 등으로 가산을 날렸다는 것이다.

최씨 가족들은 6·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정부에 탄원서를 내 안기부 인천본실로부터 “영

미를 일생 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그 해 9월부터 안기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아 기억상실증도 회복되는 등 차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92년 12월말 안기부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서 강제퇴원당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준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도 회수당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의 어머니 전씨는 “영미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상태가 심하지만 치료비문제 때문에 입원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5공 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김영환 기자 93. 10. 15

이름이 없습니다 10월말
 요양병원 등 (소속부호)
 주소지 : 구월동
 010-1111-1111 1111-1111-1111
 010-1111-1111 1111-1111-1111
 010-1111-1111 1111-1111-1111
 010-1111-1111 1111-1111-1111
 010-1111-1111 1111-1111-1111

(1981) 11월 15일
 도보대심
 통상 10 : 1시경
 (1981) 11월 15일 11시 15분

5공 고문수사 피해자 최영미씨 고문후유증 '넋잃은 13년' 이 여인을 왜 모르시나요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통 때문에 안기부로 끌려갔다는 '꽃같은 청춘'이 13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 80년대 초 앓았던 사회상을 꾸밈한 '평범한 여대생'의 편지가 안기부 서신검열에 걸렸던 것.

인

천시 남동구 구월2동에 사는 최영미씨(33)는 광포했던 독재정권이 자신에게 씌운 가혹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강압통치의 희생자다. 이른바 '고문 피해자'인 그는 올해로 13년째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오고 있다.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육체와 정신이 모두 허물어져 버린 최씨는 요즘도 고문의 악령이 되살아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등 극심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82년부터 92년까지 11년 동안 무려 17차례나 정신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최씨가 과거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던 '고문수사의 뒷'에 걸려든 것은 지난 81년. 당시 인천 대한공업전문대학 통신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그해 6월 10일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온 3명의 안기부(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사회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더 나아가 특정이념으로 무장한 '운동권 학생'도 아닌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최씨가 안기부로 연행됐던 것은 친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80년대 초반 앓았던 사회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낸 편지가 안기부의 서신검열에 걸린 것이다.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된 최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꼬박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모진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최씨의 가족



지난 81년 안기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정신분열증으로 13년째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최영미씨.

들에 따르면 그는 "그곳(안기부)에서 3명의 남자에게 고문을 당했는데 이들 중 특히 가장 젊은 사람에게 심하게 맞았다. 심지어 그들은 나를 간첩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탄원서 내자 안기부 치료 자청

최씨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두달이 지나서였다.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하루종일 방문을 잠가놓고 지내기 일쑤였다. 또 그는 "그들이 우리 가족을 모두 죽일 것 같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심한 공포와 불안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82년 2월 첫 발작을 일으킨 최영미씨는 그 이후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돼 급기야 그해 4월 서울대병원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의사들만 보면 "저놈들 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다"고 소리쳤던 그는 창문틀에다 목을 매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몇차례에 걸친 소동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다시피 한 최씨는 인천기독병원·서울백제병원 등에서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정신분열증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오랜 약물 및 전기치료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한글이나 숫자를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됐다.

최영미씨의 정신분열증이 고문 후유증인 것임을 확신한 그의 아버지 최인직씨는 85년 8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딸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최인직씨는 30년 동안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 내무부장관·경기도 도지사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기도 한 모범 경찰공무원이었다. 78년 파주경찰서 형사계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한 후 영업용 택시를 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최인직씨는 그러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뚜렷한 회신이 없자 합병으로 86년 6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쫓돌리는 생활로 인해 최씨의 약값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가족들은 그후 몇 차례 안기부 인천지부를 찾아가 "다른 것은 모두 체취두더라도 치료비만이라도 대달라"고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87년들어 최씨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그의 어머니 전진숙씨(61)는 그해 7월 또다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목요회(회장 김병상 신부) 등에 딸 영미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87년 6·29선언 후의 변화된 정치상황 때문인지 전씨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난 며칠 후 안기부 인천지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찾아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앞으로 영미의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이라고 제의해 왔다. 전씨가 안기부 직원의 요구대로 각서에 서명날인을 하자 최영미씨는 87년 9월부터 92년 10월까지 5년 동안 용인 정

신병원·인천 신경정신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최씨의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안기부가 지불했다.

'고문방지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줄여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최영미씨는 일시적으로 정신분열증이 치유되는 기미를 보였다. 기억력을 회복하고 한글을 다시 읽고 쓸 수 있게 된 최씨는 92년 11월 원고지 80매 분량의 자전적 소설 《겨울이 가기 전에》를 쓰기도 했다. 그는 이 소설에서 대학시절의 추억과 안기부로 끌려가 고문을

전씨는 또 “모진 고문을 받아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며 “어떨 때는 영미가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조차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가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고문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싶어 하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나기도 했거니와 설령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할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의 피해보상의 길이 막혀버린



최씨의 어머니 전진숙씨가 지난 87년과 93년 청와대로 보낸 탄원서.

전진숙씨는 “다시는 이 땅에 독재정권의 잔재인 고문이 횡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1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92년 12월 안기부는 갑작스레 최씨의 치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신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고, 동사무소에 발급해준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도 회당해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현재 최영미씨는 오랜기간 치료를 받지해 다시 정신분열증이 악화된 상태다. 그 유일한 소일거리라고는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에 하루 2~3통의 엽서를 보내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전씨와 함성당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영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던 최씨의 어머니 전진숙씨는 “한 개인, 더 나아가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공권력이 더기 밟기만 하다”며 “5공 독재정권이 남고 간 상처를 이제는 문민정부가 치유해거야 한다”고 말한다.

최씨 가족들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고문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가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문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문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서준식씨(46)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고문의 경우 공소시효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최영미씨와 같은 고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한다.

딸 영미씨가 하루빨리 고문 후유증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전진숙씨는 “다시는 이 땅에 독재정권의 잔재인 고문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고문 피해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 그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구재 기자>

제일모직, 삼성 신경영으로 변혁의 실천의지 다짐대회



삼성은 94년을 질위주 경영의 신경영 실천 원년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초일류기업을 추구하고 나가는 가운데, 제일모직(대표: 俞玄植)이 삼성 신경영 실천의 선두주자로서 창조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열면서 전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신경영 실천의지를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신경영 실천 행동강령을 제정, 실천하고 새해 벽두에 새 각오를 다져 타 업체에 귀감이 되고자 지난 8일 충청도 대청댐 일대 및 전주체육관에서 俞玄植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5,000여명이 모여 3S대행진(3S: 신경영, 신바람, 신사고)을 개최하고, 대청댐 일대 10.5km 대행군, 신경영 의지선언, 신경영 실천 행동강령 제정, 발표, No. 1 경진대회 등을 가졌다.

—행사내용—

●공감 공유의 장
공감공유의 장은 대청댐 잔디공원 에서 개최된 오픈행사로, 개식선언, 3S대행진의 취지에 대한 경과보고, 대표이사의 격려사, 사원대표의 신경영 의지선언, 훈련 메시지 전달식을 한 후 고적대의 선도로 참석자 전원 10.5km의 대행군을 출발하였다.

●극복 실천의 장
130여명씩 38개팀으로 구성하여 휴식없이 10.5km 행군하였는데, 코스 중에 2개의 포스트를 운영, 행군 중 신경영실천의지를 과시하고 도전과 극복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합 결의의 장
화합 결의의 장은 전주체육관에서 실내행사 및 해단식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멀티큐브를 이용한 영상쇼 및 생중계로 생동감있는 행사였다.

최영미사건 보고서

1. 인적사항

(피해자)

성명 : 최영미 생년월일 : 1961.10.11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주소 : 인천시 [REDACTED]

(보호자)

성명 : 전진숙 생년월일 : 1933.6.13.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주소 : 인천시 [REDACTED]

전화번호 : [REDACTED] 피해자와의 관계 : 모

2. 사건의 발단 및 경과

피해자 최영미는 1981년 당시 인천대헌공업전문대학 통신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1980년 봄 민주화 운동과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항거가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시대였습니다. 최영미는 그시절 새정부가 저지른 광주사태등에 분노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동조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미는 주변환경으로나 성격적으로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국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불만을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나 서신왕래과정에서 토로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81년 6월 10일 오전 7시경 최영미가 자신의 집 2층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인하공사(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왔다는 건장한 남자 3인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최영미가 연행된 곳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안기부 인천지부였는데 이곳 지하에 있는 취조실에서 그녀는 1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영미의 가족과 최영미가 친필로 쓴 글에 의하면 그녀가 연행된 이유는 최영미가 지난 1981년 4월 25일 그녀의 친구 경혜한테 보낸 편지가 어떠한 경로로 안기부 요원에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 합니다. 최영미는 안기부 지하실의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수사관의 고문과 협박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안기부의 연락으로 그의 오빠와 언니가 안기부에 와서 최영미를 인계해 갈 때 그녀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얼굴이 몹시 창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이후 최영미는 계속적인 긴장상태와 공포감으로 정신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는데, 그녀의 글에 의하면 그녀는 안기부요원에 의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 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현재 중증환자가 되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정신분열증 치료과정

1) 가족에 의한 치료

최영미는 82년 4월부터 87년 7월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1985년 인천기독병원에 입원했을때에는 특수치료에 의한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한글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미 가정은 이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하는 한편 아버지 최운직지가 1986년 화병의 별세하는등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2) 안기부 인천지부 부담에 의한 치료

안기부는 최영미를 처음에는 인천정신요양원(남구 등촌동 소재)에 입원 치료하다가 1987년 9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인천정신요양원을 보호자로 하여 용인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1988년 5월부터 1992년 10월 30일까지는 역시 인천정신요양원을 보호자로 하여 삼영신경정신병원(현 삼영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에서 입원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영원(삼영신경정신병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면서 명칭이 변경됨)에서 의료보호환자는 장기입원을 시킬 수 없다면서 강제 퇴원시켜 1992년 12월 말까지는 통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12월 28일 구월2동 동사무소에서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나마 통원치료조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받는데 근거가 된 의료보호증이 안기부의 영향력하에 편법으로 발급된 것이고 담당 동사무소 직원이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진료증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안기부 인천지부가 최영미를 평생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여 입원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원치료마저도 의료보호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최영미는 치료받을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13년째 정신병자로 신음하고 있는 딸을 치료하랴 가산을 탕진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고 있는 전진숙씨는 김영삼문민정부 등장직후인 1993년 4월 30일 대통령께 3차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전진숙씨는 탄원서를 통해 딸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을 통해 온 청와대의 답변은 '생활보호자에게 드리는 의료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